

## 구비설화의 성담론, 독사(doxa)와 파라독사(paradoxa)

오세정\*

<차례>

1. 서론
2. 회화화된 성, 왜곡된 성의 함의
3. 적극적인 여성, 주체를 꿈꾸는 여성
4. 결론

### <국문초록>

구비설화에서 성은 많은 경우 회화화된다. 이 같은 이야기에서는 성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겪는 해프닝을 주로 다루는데, '성교육'의 대상이 주로 남성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성은 성행위의 주체로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여성은 배제되는 것이다. 성기에 대한 왜곡과 과장을 다룬 이야기에서도 남성 주체의 시각, 타자화된 여성이라는 성담론의 독사가 드러난다. 여성의 신체와 성기는 저항할 수 없는 약자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폭력의 논리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구비설화에서는 한국 문화전통 속에서 강력한 독사로 자리 잡은 남성 주체, 여성의 타자화와 부합되지 않거나 이러한 독사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여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열'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 중에서 일반적인 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열불열'의 이야기가 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사랑이 실패하자 상대방 남성을 납치하거나 원귀가 되어 보복하는 이야기, 여성 인물이 직접 자신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남성 인물을 테스트하고, 조롱하고, 조종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 같은 여성 인물들은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과단성을 보여주는데, 그 행위에 대한 평가나 결과를 떠나 한국의 전통적 덕목이나 윤리·가치에 결코 어울리지는 않는 새로운 인물상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이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타자 내지 객체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주체를 꿈꾸는 자들이다.

성담론은 견고한 독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저항하는 파라독사가 끊임 없이 양산되고 있으며 더욱 양산되어야 한다.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들 속에서 지워진 여성의 의식이나 시각, 내지 독사의 논리에 억압받는 주변 담론을 어떻게 재구하는가이며, 나아가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담론들의 확대생산이다.

**주제어** 담론, 독사, 파라독사, 구비설화, 희화화, 주체, 타자

## 1. 서론

문학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세계와의 1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세계를 바라보고 수용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텍스트에 담게 된다. 생산자는 세계와 텍스트 사이에서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의 과정을 수행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당연하다고 믿는 진리 내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는 못한다. 이 같은 시각이나 입장을 '독사doxa'라고 명명한다면, 생산자는 개인적 편견 내지 가치관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가치관 내지 편견을, 즉 생산자의 독사를 텍스트 속에 잉태하기 마련이다. 또 글을 쓰는 행위는 세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와 다른 차원의 독사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글쓰기 행위 자체가 갖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즉 글씨기 내지 발화 양식이 사회적·역사적으로 존재하며 글쓰기(발화)양식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유행 내지 담론 속에서 명명되고 기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글쓰기(발화)의 독사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독자가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독자의 독사, 즉 개인적 독사, 집단적 독사, 독서행위의 독사가 존재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독자는 다시쓰기rewriting를 통해 새로운 텍스트 생산에 참여한다. 이 차원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독사가 개입된다. 텍스트 연구자들은 메타meta 차원의 다시 쓰기를 수행하는 텍스트 생산자로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의 독사는 더욱 복잡한 층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령, '성(性)'이 중심 소재인 텍스트를 연구한 경우, 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통적인 관념에서부터 새로운 이론으로 재조명한 이견(異見), 학계의 틀 속에 존재하는 지배 담론을 비롯, 다양한 담론 및 저항 담론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재창조된 텍스트가 존재한다. 이는 독사와 그에 반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망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독사doxa는 일반적으로 교리 내지 집단적으로 수용된 진리치 등으로 인식된다. 이 용어를 처음 본격적으로 사용한 플라톤Platon은 독사를 삶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독사는 감각적인 것에 대한 앎이고 이데아에 대한 앎은 인식epistēmē이다. 그에 따르면 독사는 무지(어두움)는 아니되, 본질에 대한 인식 차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수준의 앎의 단계이며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sup>1)</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학의 중심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독사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비극은 완결된 행위의 모방일 뿐만 아니라, 연민과 공포를 고무시키는 사건의 모방으로 간주했는데, 이러한 효과가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예견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질 때라고 단정했다. 즉 para tén doxa, 집단의 일반적 의견에 반하여 일어난 사건은 특히 비극에 적합한 것이다.<sup>2)</sup> 현대에 와서는 바르트R. Barthes

1) 플라톤, 『국가/소크라테스의 변명』, 조우현 역, 삼성출판사, 1985, 227~234쪽.

2) Ekkehard Eggs, "Doxa in Poetry: A Study of Aristotle's Poetics", *Poetics Today* 23:3(Fall 2002), pp.396~397.

가 독사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고대 철학 전통 속에 존재하는 독사의 개념인 ‘논증을 지지하는 의견, 거대 다수에 의해 공유되는 것, 철학자들 사이에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아리스토텔레스 Topics 1.1)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축소된 논리, 공적인 것, 상식적, 일상적 의견의 층위에 부합되는 것’과 관련시켰다. 나아가 바르트는 『신화론Mythology』에서 사용한 ‘역사의 자연화’로서의 신화를 독사와 결부시켰다.<sup>3)</sup> 그는 “신화적 전도inversion의 영향 아래, 발화의 고도로 우연적인 근거가 상식, 신의 법, 규범, 표준적 의견, 즉 Endoxa가 된다.”고 말했다.<sup>4)</sup>

요컨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유래된 독사의 개념은 보편적 지식 혹은 공유된 의견 등으로 흔히 정의된다. 하지만 학자들이나 논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 영역을 아우르기도 하는데, 공통의 부분들을 취합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 혹은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의해 진리로 간주된 것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sup>5)</sup>

독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idea’와 대칭적이며, 동시에 독사의 반명제인 ‘파라독사paradoxa’와도 대칭적이다. 독사에서 파생된 파라독사/파라독스paradox는 관련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해결 불가능한 명제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대표적이다. 파라독스는 수사학과 미학에서는 복잡하게 모순적인 생각과 감

---

3) Herschberg Pierrot, “Barthes and Doxa”, *Poetics Today* 23:3(Fall 2002), pp.427~428.

4) Roland Barthes, “La Mythologies aujourd’hui”(1971), *Oeuvres complètes*, vol.2, ed., Eric Marty, Seuil, 1994, pp.1183~1185. Anne Herschberg Pierrot, 앞의 글, pp.428~429에서 재인용.

5) Ruth Amoss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Doxa”, *Poetics Today* 23:3(Fall 2002), p.369.

정, 더 나아가 시적 창조성까지 담아내는 능력을 가르키기도 한다. 유력한 정설에 도전하는, 즉 전통에 반기를 든 의견을 의미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파라독스이기도 하다. 요컨대 파라독스는 독사(doxa)에 항거하는 것이다.<sup>6)</sup>

지배적인 것과 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지배적인 것과 불화하는 위치를 분명히 하는 파라독스를 통해 우리는 지배담론의 정체와 억측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배담론의 균열을 낼 수 있으며, 새로운 저항담론을 모색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토마스 쿤 T. Kuhn이 지적인 패러다임의 논리와도 유사하다.<sup>7)</sup> 쿤의 패러다임은 모든 지배적인 것과 그에 반하는 것들과의 경합 과정을 쉽게 조망할 수 있게 해 준다. 한 사회 집단 구성원 대다수이나 그 집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에 의해 선택된 정상담론은 독사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 담론과 다른, 혹은 새롭게 출현한 담론을 무조건적으로 파라독사라고 칭할 수는 없다. 단순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전대의 패러다임을 일정 부분 계승한 것을 파라독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사와 파라독사의 관계는 지배·억압·통제 대 거부·저항·일탈 등의 대립적 관계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독사와 파라독사를 통해서, 특정한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

6) 조앤 W.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공임순 외 역, 엘피, 2006, 391쪽.

7) 쿤의 패러다임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 활동에서 새로운 개념은 객관적 관찰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집단이 모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신뢰하는 과학 내용과 수단을 '패러다임paradigm'이다. 과학활동의 단계는 이 패러다임의 전화 과정으로 설명된다.

(1) 여러 이론이 공존하는 전(pre) 과학 단계 (2) 한 이론이 우월적(prior) 지위를 차지하는 정상(normal) 단계 (3) 정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anomaly) 징후, 현상들이 등이 등장하는 단계 (4) 새로운 이론이 혁명적으로 등장하는 단계 (5) 그 이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되고 정상 과학이 되는 단계

토마스 S. 쿤, 『과학 혁명의 구조』, 김명자 역, 두산동아, 1999, 31~46쪽.

며 집단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는 담론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객관화하고 반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담론 속에 존재하는 독사와 파리독사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보다 풍부한 텍스트 재생산과 사유가 가능할 것이다.

본 논의는 성 내지 성차를 다룬 구비설화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생산과 소통 과정에 스며있는 성담론의 독사와 파리독사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담론은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사를 보여주는데, 역으로 이 독사가 다양한 성담론을 재생산했다고 볼 수 있다. 성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으며, 인간 무의식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관계와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성담론에서 독사는 단일하게 전개되기 보다는 다양한 담론들과 겹쳐져 교묘한 지배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성에 대한 심각한 접근이 아닌 단지 희화화된 이야기에서도 중첩되어 존재하는 다양한 담론의 층들이 존재하며 여기서 독사의 지배 논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구비설화에서는 성차의 독사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여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 성담론의 파리독사를 엿볼 수 있다.

## 2. 희화화된 성, 왜곡된 성의 함의

널리 알려진 성담론 속의 독사는 남성 지배 사회 전역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남녀 성차의 논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가부장적 질서’, ‘남존여비 사상’ 등의 언술로 대표되는 성차의 독사는 특히 조선시대를 지배한 유가 사상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사람들은 흔히 단정한다. 유가의 성관(性觀)은 『周易』을 근간으로 하는데 『주역』의 근본원리는 자연과 인

간의 세계 일체를 음과 양으로 이해하고, 여자와 남자를 음과 양으로 대칭시킨다. 음양의 원리는 양이 음을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양이 되는 남자가 우월하다는 남존여비의 관념을 내포한다.<sup>8)</sup> 우리의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 내지 ‘남성 우월주의’의 근거가 『주역』의 음양의 논리로 단순 치환되는 것은 대표적인 편견이다. 『三國史記』에서 김부식은 선덕여왕 사론(史論)을 통해서 『주역』의 음양 논리를 통해 남여에 대한 가치관을 피력하고 있다. “天道로써 말한다면 양이 綱하고 음이 柔한 것이다. 이를 人道로써 말한다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것이다. 어찌 여자가 규방에서 나와 국가의 政事를 결단할 수 있으리오. 신라는 여자를 세위 왕위를 잇게 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렇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요행이었다.”<sup>9)</sup> 김부식은 소위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독사를 신봉한 대표적 인물로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성차에 대한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三國史記』와 같은 공식 역사서의 경우, 당대의 지배 논리나 중심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물전에 전하는 일화나 풍속편에 전하는 시대상은 이 같은 지배 논리, 즉 성과 관련된 독사에 반하기도 한다. 구비설화의 경우 공식 기록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중들의 생활풍속이나 의식들을 접할 수 있다. 성과 관련된 내용은 무척이나 다양하며, 근본적으로 인간 생활 속에서 성과 무관한 것은 없다할 만큼 광범위하다.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성을 소재로 한 구비설화를 두 범주로 설정해서 살펴 볼 것이다. 성기나 성행위와 같은 직접적으로 성을 나타내는 소재가 이야기의 핵심 모티프가 되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성차(性差), 즉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 위계 등이 이야기 전개에 있어

8)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 동녘, 1994, 96쪽.

9)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善德女王條.

서 핵심 모티프로 작용하거나 주제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한다.

성행위나 성기를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비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sup>10)</sup> 설화분류표<sup>11)</sup>상 2. ‘알고 모르기’ 항목 중 246번 항목 ‘모르는 짓 가르치기(성행위 가르치는 음담패설)’와 4. ‘바르고 그르기’ 항목 중 443번 항목 ‘남녀관계 잘못되기(웃음을 자아내는 음담패설)’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비설화에서 나타나는 성 관련 이야기들은 대부분 회화화되어 전승된다는 점이다. 이는 구비전승자들의 문화적 관념 내지 성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이야기 1 바보가 만든 아이<sup>12)</sup>

할머니가 늙도록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장가카라고 하지만, 아들이 거절하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맛이 좋은데’라는 말을 해주다.  
아들은 결국 맛이 궁금해서 장가들 가다.  
아들은 첫날밤에 아내의 음부를 조개껍질 같은 것으로 굽어서 맛을 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장가카도 맛있는 것은 없다고 불평하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해주고 그대로 하라고 한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두꺼운 부침개를 부쳐서 며느리 음부에다 붙이고  
삼베로 감아 짓가락과 함께 붙여 놓으라고 시키다.  
다음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부침개를 떼어 낼 사이도 없이 성교를 하다.

10) 『한국구비문학대계』 1~85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이하 인용되는 설화 텍스트는 모두 이 출전을 따른다.

11)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 수집과 설화 분류의 기본 원리』,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16쪽.

12) 『한국구비문학대계』 8-10권, 경남 의령군 부림면 설화.



며느리는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다.

낳은 아이가 부침개를 머리에 이고 삼베를 등에 붙이고 젓가락을 지팡이 삼아 나왔다.

■ 이야기 2 부러진 숟가락<sup>13)</sup>

어떤 중이 남자들이 여자들의 맛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어느 날 중은 한 여자를 만나자 덤벼들어 여자 맛을 보려 하다.

중은 숟가락을 꺼내 여자의 음부를 펴서 맛을 보다.

중은 맛이 없는데 왜 맛있다고 하나며 불평하다 숟가락을 부러뜨리다.

중은 남자들의 말이 거짓이라 생각하고 길을 떠나다.

여자가 중을 보내고 소변을 보니 부러진 숟가락이 나오면서 ‘쇠’하는 큰 소리가 나다.

■ 이야기 3 바보 얘기<sup>14)</sup>

아들이 중국인들한테 배운 향문성교만 하다 장기를 듣다.

아들이 아내와 자는 것이 재미없다 투덜거린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내를 얹어놓으면 자꾸 뒤집는 바람에 성교를 할 수 없다고 불평하다.

아버지는 아들을 타일러 바로 누웠을 때에도 좋다고 일러준다.

아들이 아내와 사흘 묵은 뒤로는 별 일 없이 잘 지내다.

■ 이야기 4 버릇없는 며느리<sup>15)</sup>

어느 노부부가 아들을 장가 보내다.

노부부는 큰방에서 지내고, 아들 내외는 작은방에서 지내다.

밤마다 아들 내외가 싸우는 소리를 노부부가 듣다.

며느리는 노부부에게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불평하다.

13) 『한국구비문학대계』 1-5권, 경기 화성군 봉담면 설화.

14) 『한국구비문학대계』 8-14권, 경남 하동군 화계면 설화.

15) 『한국구비문학대계』 8-3권, 경남 진양군 금곡면 설화.

며느리는 자기가 자는데 아들이 자꾸 마른 것을 쪽 밑어 넣어대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불평하다.

이야기 1~4까지는 성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겪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분류표상으로 246번 항목 ‘모르는 짓 가르치기’에서 성에 대해 무지한 인물은 바보(어린) 신랑, 바보 자식(주로 아들), 바보 처녀가 대표적이다. 이야기 2에서와 같이 성에 대해 무지한 인물로 승려로 설정되기도 한다. 위에 언급한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 내지 성행위 등은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성(성행위)과 관련된 전승자들의 금기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성은 인간의 존재론적 운명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성행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발화가 자유로운 구술 상황에서도 성(성행위) 관련 언술들은 우회적으로 표현된다. 성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쾌락을 ‘맛이 좋다’라고 표현하거나, 성기를 ‘마른 것’, ‘조개’ 등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위의 이야기에서 주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성교육’의 직접적인 대상이 주로 남성이라는 점이다. 여성이 무지한 경우도 있지만 성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는 식의 이야기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성행위의 주체가 바로 남성이라는 점이다. 처녀가 성행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오히려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결혼을 한 성인 남성이 성(성행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은 성행위를 통한 혈통 계승, 즉 자식의 생산이 1차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에 있어서 개방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성행위의 초심자들은 실제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통과의례를 거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행위로 수용되지만 초심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바로 웃음 유발의 발판이다.

그런데 이야기들 중에서는 단순히 유쾌한 웃음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특히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남성 성기에 비해서 훨씬 왜곡되고 과장된다.

■ 이야기 5 벌에 쓰인 남편의 그것<sup>16)</sup>

어떤 사람이 길에서 소변을 보다 벌에 자신의 성기를 쏘이다.  
그 사람이 겨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죽을 지경이라고 말한다.  
아내는 밥을 새로 하여 벌이 있는 데로 가다.  
아내가 벌에게 그것 굶기는 그만하면 되었으니 길이를 길게 해 달라고 벌다.

■ 이야기 6 재수가 없는 큰 음부<sup>17)</sup>

음부에 털이 아주 많은 여자가 살다.  
여자가 여름날 목욕을 하고 물기를 닦지 않은 채 집에 와서 벗고 자다.  
이웃집에서 마침 삼을 베껴 담고 있었는데 삼이 없어지다.  
이웃집 사람이 그 여자의 털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삼을 훔쳤다고 주장하다.  
여자의 남편이 이웃집의 삼을 물어주고 여자의 털을 자르다.  
마침 다른 이웃집에서 키우던 돼지가 없어지다.  
이웃집에서는 잘라서 버린 여자의 털을 보고 돼지털로 간주하고 따지다.  
여자의 남편이 돼지 값을 물어주고 여자의 음부를 잘라 문간에 걸어두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와서 동냥하면서 슬피 울다.  
여자의 남편이 우는 이유를 묻자 자신의 스승이 입술이 잘려 살해당했다고 말하다.  
남자는 그때 문간에 걸린 여자의 음부를 보고 살인을 했다고 난동을 피우다.  
여자의 집안은 돈을 물어주고 망하다.

16) 『한국구비문학대계』 2-1권, 강원도 강릉시 설화.

17) 『한국구비문학대계』 2-8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설화.

이야기에서 남성 성기의 회화화는 남성의 성기가 커진다는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무지한 처녀가 남성 성기가 커지는 것을 오해하는 유형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한다. 이야기 5에서는 벌에 쏘인 남편의 성기를 걱정하기보다는 남편의 성기가 더 커지기를 소망하는 아내가 웃음을 유발한다. 반면 여성의 성기는 입모양과 닮았다는 특징이 과장되게 나타나거나, 음부의 털을 문체 삼는 경우가 많다. 또 이야기 1, 2에서와 같이 여성의 성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회화화하기도 한다.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대부분 다시 분출하는 것으로 대구를 이룬다. 성기의 형태나 특성이 회화화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남성의 성기에 비해서 여성의 성기는 훨씬 더 많은 왜곡과 수난을 겪는다. 성행위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들다/나다’가 사용되는데(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7 참고), 이 入/出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여성의 몸은 남성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비정상 내지 비뚤어지고 왜곡된 것으로 인식된다. 여성 신체 중에서도 가장 타자화된 여성의 성기를 통해 남성들은 이물질이 들어가고 다시 배출된다는 왜곡된 상상력을 이끌어 냈다.<sup>18)</sup> 이 같은 왜곡된 타자의 상상력은 이야기 6에서 극에 달한다. 남성의 성기는 커야 미덕인 반면(이야기 5), 여성의 성기는 작아야 한다.<sup>19)</sup> 이야기 6은 여성의 음부와 털이 환기시키는 다른 사물들을 과장시켜서 동일화하는 수법으로 여성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고 있다.<sup>20)</sup> 성기는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다.

1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희극은 보통 이하의 악인의 모방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시학』, 나종일·천병희 역, 삼성출판사, 1993, 341~342쪽. 이 때 악은 우스꽝스러운 것과 관련되는데, 이는 비정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스꽝스럽고 추하고 비뚤어진 것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 비극의 인물이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연민이 유발되는 것과 대칭적으로 희극은 타자화된 존재가 만들어 낸다.

19) 이야기 6에서 드러나듯 여성 성기의 크기는 음부의 털의 양과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기가 크고 음부의 털이 많아서 재수가 없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0) 한국 전통에서 여이는 어머니 태속에서 잘못 자리잡은 비뚤어진 존재이다. 전통 한방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과 위계, 주체와 타자의 관계 양상에 대한 아이콘 icon이자 상징symbol인 것이다. 따라서 가장 극단적인 방식의 왜곡과 비유가 발생하는 지점이며, 성차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단순히 과장·왜곡, 희화화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독사는 남성적 시각에 의한 여성의 타자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주체와 여성의 타자화는 프로이트S. Freud에 의해서 정식화되었다. 그의 논의의 핵심인 성적 욕망은 인간의 근원적 조건이며 모든 사고와 행위의 초석이 된다. 성욕은 한 인간 개체의 의식과 무의식의 중추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문화의 근간이기도 하다.<sup>21)</sup>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성 내지 성욕의 문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에서 집약되듯이 인간 개체로 태어난 유아의 욕망이 어떻게 실현되고 억압되고 전화되는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성/성욕의 문제는 성차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프로이트는 여아의 경우 “남의 눈에 떨 만한 큰 페니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불리한 입장이라고 굳게 마음먹고 남아의 그것을 부러워하”<sup>22)</sup>게 된다고 단언한다. 또한 남아가 오이디푸스 기(期)를 거쳐 성숙한 인간 개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숙지해야만 한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종교적 기원을 갖는 표현으로, 아이가 자신이 내면화하고 담당하

의술서에는 태아 감별법이 있는데 임신부 배에 불룩하게 볼거지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평탄하면 남성이라고 한다. 凸(철)/平(평)의 대립은 여성에 대한 남성 시각의 단적인 사례이다. 철은 오류, 오입(誤入)이다. 따라서 철은 일차적으로 교정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의술서에서는 임신 초기 태아가 여아로 감별될 경우, 남아로 전환시키는 처방(治方)을 한다. 오류의 수정, 왜곡의 정상화인 것이다.

김열규, 『한국의 문화코드 열 다섯 가지』, 금오문화, 1997, 230~231쪽.

21) S.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역, 범우사, 1990, 25~26쪽.

22) 같은 책, 327쪽.

는 아버지의 기능, 즉 사회적 법률·규칙을 의미한다. 최초의 욕망 대상인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이 금지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발동하는데, 이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제 삼자, 아버지의 심금을 대리하는 아이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아버지의 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욕망하는 여인이지만 금지의 상징적인 법 앞에 놓여 있는 어머니의 방식 속에서, 혹은 욕망하는 주체이지만 금지를 자신 안에 통합시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 아이의 방식 속에 있다.<sup>23)</sup> 요컨대 프로이트의 담론 속에서 남성 주체와 여성 타자화는 인간의 본질적 정체성이며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성담론을 재생산하는 연구자들은 남녀관계에 있어서 주체와 타자라는 이 같은 관계의 독사에 관해서 일찍이 주목·비판해 왔다. 성욕·행위·섹슈얼리티의 문제에서 행위의 책임은 ‘절제’보다는 ‘유혹’의 문제로, 유혹하는 존재인 여성에게 근원적 책임이 전가되어 왔다.<sup>24)</sup> 이 같은 성담론은 텍스트 생산에 있어서 발화(글쓰기)의 양식에서 이미 독사가 존재하며 자동화된 장치가 되어왔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하는 서사라 하더라도 발화자의 입장이 결부됨에 따라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혹은 의미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기술(記述) 문화 영역의 경우, 특히 남성 지배층의 언어와 세계관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상대적으로 지배적 발화 양식이 덜 견고했던 구술(口述) 문화 영역의 경우에

23) J. 나지오, 『정신분석학의 7가지 개념』, 표원경 역, 백의, 1999, 219쪽.

24) 성에 있어서 남성 주체와 여성 타자의 관계는 수많은 성담론 생산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주체와 타자로 형성된 극단적인 담론의 예로 ‘강간’, ‘ 겁간’을 들 수 있는데,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마저도 남성적 시각에서 합리화·정당화된다.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2003, 248~249쪽.

신동훈, 「문헌 욕담과 구전 욕담에 담긴 성의식」, 김선희 외, 『한국 욕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9~10쪽.

서 독사의 견고함은 덜했지만, 발화자(설화 제보자)의 성별에 따라 성적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25)</sup> 하지만 기록물에 비해서 구비설화에서 성담론의 독사에 저항하거나 이탈하는 파라독사를 찾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

■ 이야기 7 들여보라 내보라 새우젓 장수<sup>26)</sup>

장성한 총각이 밤마다 요위에 오줌을 싸다.

하루는 오줌을 싼 총각이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며 집에서 쫓겨 나온다.

총각은 아랫집에 젊은 과부의 집으로 도망가다.

총각은 과부가 이불 속에 숨겨줘 그 속에 숨다.

과부는 총각의 어리숙함을 눈치 채고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말하다.

총각은 과부의 말대로 과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과부가 들여보라 하면 넣고 내보라 하면 빼다.

과부집을 지나가던 새우젓 장사가 이를 듣고 새우젓을 집 안에 들였다가 다시 빼내기를 여러 번 했다.

새우젓 장사가 첫병을 깨뜨려 화가 나서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보고 가버리다.

■ 이야기 8 아내 더위 뺀 사람<sup>27)</sup>

옛날 한 사람이 친구에게 자기 아내가 더위를 먹었다고 하소연하다.

친구가 더위를 빼주겠다고 하여 아내에게 데려가다.

친구는 아내를 눕혀 놓고 성교를 하다.

친구는 그 사람에게 자기 봉알이 그의 아내의 성기에 닿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다.

25)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出嫁外人’ 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26쪽.

26) 『한국구비문학대계』 6-6권, 전남 신안군 하의면 설화.

27) 『한국구비문학대계』 6-6권,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설화.

남자는 화가 났지만 먼저 부탁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다.  
친구는 일을 다 치르고 아내의 더위를 빼다.  
남자는 속이 상해서 아내에게, 친구 죽으라고 봉알이 달았는데도 아무 말  
안했다고 고백하다.

두 편의 이야기는 어리석은 남성인물의 희화화와 성행위의 희화화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야기 7에서는 성행위에 대한 '出/入'행위의 표상이 빛은 오해가 주되게 웃음을 유발한다. 반면 이야기 8은 자신의 아내와 친구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바보 남성의 이야기이다. 남자의 마지막 발화는 속은 자가 다시 한 번 속음으로써, 자신이 친구에게 복수를 했다고 믿지만 오히려 더 크게 당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두 편의 이야기는 정상적이지 않는 성관계의 유형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과부와 총각, 유부남과 유부녀의 성행위는 반윤리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단지 희화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 사회가 반윤리적인 성행위에 있어서 관대했었다고 일반화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가의 엄격한 성윤리에 반하는 파라독스로 기능하는 이야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여성의 시각이나 목소리는 거의 삭제되어 있는 반면, 이야기 7의 과부는 총각을 피어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인물로서 성행위의 주체로 나타난다. 이 같은 점은 남성적 시각이 지배적인 성담론 내에서 새로운 파라독스의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기록문학에 비해서 구비설화에서는 여성들이 주체화되거나 적극성을 띠는 이야기들이 다수 존재한다.

### 3. 적극적 여성, 주체를 꿈꾸는 여성

남성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경우와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는 여러 가지



성격상 구분이 가능하다. 이야기의 주인공 성별에 따른 텍스트 생산 원리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의 독사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사의 시조격인 신화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살필 수 있는데, 캠벨 J. Campbell에 따르면 신화의 영웅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여행을 선택하는 영웅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속에 던져지는 영웅이다.<sup>28)</sup> 이 같은 영웅 유형은 한국의 신화체계에서 건국신화의 남성 주인공과 무속신화의 여성 주인공과 대칭적으로 일치한다.<sup>29)</sup> 한국의 신화에서 영웅은 출생, 출가, 수련, 시련, 투쟁, 성공의 단계를 거쳐 중심 이념과 가치를 실현한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영웅의 가치실현은 공간 이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주인공, 즉 영웅은 일반인들이 이동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이 필수적으로 작용한다.<sup>30)</sup>

여성 영웅들은 주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돌아오는 공간 구조의 서사 속에 위치하고 이동한다. 남성 영웅은 안에서 나가서 밖에서 이룩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끝난다. 여성 영웅의 경우 밖으로 나가서 최초의 공간의 안으로 회귀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만든 세계의 안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 영웅의 주제는 적어도 신화에서는 '가족(가정)의 복원(수호)'이 중심 테마이다.<sup>31)</sup> 무속신화에서 제시되는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은 주로 가정 내의 문제로 귀결된다. 문제 유발자(trouble maker)는 주로 가족 내 남성 구성원(주로 아버지나 남편)이며 해결자(peace

28) 조셉 캠벨, 『신화의 힘』, 이윤기 역, 고려원, 1996, 246~247쪽.

29) 오세정, 『한국 신화의 소통과 생성 원리』, 한국학술정보, 2005, 205~206쪽.

30) Y. M. Lotman, *Universe of Mind-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151.

31) 강진옥은 신화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족의 문제를 1) 집 밖의 여성들의 경우 집짓기와 가족 만들기, 2) 집 안의 여성들은 집 다시 세우기로 요약하고 있다.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0~16쪽.

maker는 여성 구성원(주로 딸이나 아내)이다. 여성 영웅은 희생제의를 통해 자신이 속한 가족(가정)의 복원을 위해 공간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sup>32)</sup> 신화에서 여성 영웅의 최종 귀착지는 결국 가정 내부인 셈이다.

신화와 마찬가지로 구비설화(전설, 민담) 내 성차의 문제는 주로 부부 관계가 중심축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열녀 설화'가 있다. 열녀 설화는 말 그대로 여성이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이야기로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 분류표 4번 항목 '바르고 그르기'에서 선인의 선행 중 411번 항목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가족 사이의 바른 도리 지키기' 중에 8번 '어려운 사정 있어도 정절 지키기', 9번 '남편 대신 옥살이 한 열녀', 11번 '목숨 걸고 남편 구하기' 유형에 속하는 설화들이다. 열녀 설화의 주인공은 여성이지만, 남성에 종속된 여성들의 존재론적 지위와 인식론적 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열녀 설화는 당대 지배적 윤리 이념인 '烈'을 몸소 실천한 인물들의 선행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구비설화에는 문헌 자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이야기, 즉 열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열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이는 구비설화의 전승자들이 전통적인 열의 윤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구현하지는 않으며,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와 윤리적 가치와의 충돌과 긴장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33)</sup> 구비설화의 전승자들이 보여주는 지배적 가치에 대한 파라독스는 다른 유형의 설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범으로 자리 잡았던 남성상과 여성상에 반하는 새로운 상들이 제시되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남녀 문제를 이끌

32) 오세정, 앞의 책, 204~210쪽.

33) 민찬, 「열불열설화의 이념적 지향과 삶의 문제」, 『한국문화』 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7, 68~77쪽. 이인경, 「'개가열여담'에 나타난 열과 정절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6, 한국구비문학회, 1998, 268쪽에서 재인용.

고 나가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 이야기 9 남편 원수 깊은 열녀<sup>34)</sup>

한 마을에 홀아비와 부부가 이웃해서 살다.

홀아비는 장사를 하고 다른 남자는 농사를 짓다.

남자는 농사가 실패해서 굶주리게 되다.

홀아비가 남자를 꼬여 함께 장사를 하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남자가 숲에서 대변을 보다.

홀아비가 남자의 목을 잘라 죽이다.

홀아비가 남자의 집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거두어 함께 살다.

홀아비와 여자가 부부로 살며 아들 셋을 낳다.

홀아비가 어느 날 아내에게 전 남편 죽인 사실을 말하다.

홀아비가 잠들자 아내가 잘 갈이둔 칼로 홀아비를 죽이다.

여자가 아들 3형제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다(여자도 죽다.)

여자가 마을 원에게 사실을 고하다.

여자에게 열녀문이 내리다.

■ 이야기 10 열녀<sup>35)</sup>

마산에 아름다운 부인이 남편과 살다.

이웃집 남자가 부인에게 마음을 품다.

이웃집 남자가 여인의 남편을 꺾어 산에 나무하러 가다.

남자가 여인의 남편을 죽이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여자는 이웃집 남자와 살다.

어느 여름날 남자는 마당에 비거품을 보고 과거일을 떠 올리다.

남자는 자식 셋이나 낳고 잘 살았으니 비밀을 말해도 좋다고 생각하다.

남자의 이야기를 듣자 여자가 칼로 목을 쳐 죽이다.

여자의 열녀비가 서다.

34) 『한국구비문학대계』 5-4권, 전북 군산시 설화.

35) 『한국구비문학대계』 8-3권, 경남 진주시 만경북동 설화.

이 유형의 이야기는 자신의 미모를 탐내어 남편을 죽인 자의 아내가 되어 살다가 사실을 알고 복수한다는 기본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선학들은 열과 불열의 내용이 함께 있는 이 유형을 ‘烈不烈 이야기’로 칭했다. 여성의 개가가 실질 행위이지만 전 남편의 원수를 갚고 자결하였기 때문에 불열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물론 이야기의 제목이나, 이야기 말미에 관습적으로 나오는 ‘열녀문’은 당대 지배적 독사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숨죽이고 있는 파라독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조선시대 지배담론은 여성의 ‘수절’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박관념을 보인다. 조선 건국 초기, 고려의 사회 문란상을 바로 잡기 위해 위정자들은 성의 문제를 여성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화한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수절’이 일반화된다.<sup>36)</sup> 양란 이후 다소 완화되고 해이해진 윤리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당대 급진적이었던 실학자들도 여전히 정절, 열에 대해서만 큼은 보수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견지했다.<sup>37)</sup>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지배 담론 속에서 열의 개념의 확장되거나 유연해진 것이 아니라 당대 독사에 반하는 파라독사의 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인경은 이 유형의 설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야기의 핵심의미는 여성이 현재의 행복을 뿌리치고 본 남편의 복수를 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유형의 설화에서 두 번째 남편과의 생활이 행복했다는 점을 강조하

36) 하현강, 「한국 여성상의 형성」, 김열규 외, 『한국여성의 전통상』, 민음사, 1985. 21~22쪽.

37) 이수광은 전쟁이후 부녀들이 더럽혀져서 풍속이 나쁜 것을 개탄했으며, 부녀의 ‘貞信不淫’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芝峰類說』 卷2, 諸國部 風俗條

박지원도 청의 학자에게 조선의 미풍양속으로 ‘女子不更二夫’를 자랑하였다.

『燕巖集』 12,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秋 8月初 10日條

면서 정절의식 이전에 인간의 보편적인 신의 차원에서 조명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이 뒤바뀌더라도 충분히 이야기의 개연성이 성립되며, 자신의 배우자를 죽인 원수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은 것을 알았을 때 남녀를 불문하고 범인들은 죽은 배우자에 대해 죄책감과 살인자에 대해 복수심이 생긴다는 것이다.<sup>38)</sup> 이 이야기가 열보다 보편적 인간의 ‘신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양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동의하기에는 다소 먼 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녀 문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이었던 지배 논리가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균열을 보이는 근거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 이야기 11 아내의 정조를 뺏은 양오 원수 갚기<sup>39)</sup>

임진왜란 때 명의 구원병 중 양오라는 장수가 조선에 오다.  
 양오가 조선 군사의 아내 홍도에게 반하다.  
 양오가 홍도를 취하기 위해 전후에 홍도 내외를 생포해 귀국하다.  
 양오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홍도 내외는 거역할 수 없다.  
 양오가 홍도의 남편을 때리고 죽이려하다.  
 홍도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양오의 수청 요구를 받아들이다.  
 홍도가 양오와 하룻밤 자고 나서 도망쳐 나오다.  
 홍도가 죽을 결심을 하다.  
 홍도가 산 중 초옥에서 노인을 만나다.  
 홍도가 노인에게 3년간 무술 수련을 받다.  
 홍도가 원수를 갚기 위해 양오의 군영으로 잠입하다.  
 홍도가 양호의 처소에 들 때 헤어졌던 남편을 만나다.  
 홍도 내외가 호위병과 양호를 죽이다.  
 홍도 내외가 무사히 조선으로 귀국하다.

38) 이인경, 앞의 글, 208쪽.

39) 『한국구비문학대계』 2-8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설화.

이 이야기는 남편 살려 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이야기인데 남편의 목숨과 부인의 정절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 9, 10에 비해서 일반적인 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 종속되는 존재이며,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급한 이야기는 단순히 남편을 살린 여성이라는 점 보다는 이후 여성의 활약상이 특이하다. 또한 여성 주인공인 홍도가 자신을 범한 명나라 장수에게 복수하는 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소개되고 있다. 홍도는 산에서 만난 이인에게 무예를 익혀 대국의 군영에 뛰어드는 담대함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남성 영웅담에 나오는 구조를 보여주며, 여성 인물인 홍도의 현실 대처 방법 역시 자결이라는 패배주의적 발상이 아닌 복수라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이 구비설화 전승집단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겪은 역사적 수모와 고통을 성담론과 연결지어 새로운 파리독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 이야기 12 십 년 공부 나무아미타불<sup>40)</sup>

양반집에 혼사가 있다.

양반집 몸종이 새신랑에게 한 눈에 반하다.

몸종이 새신랑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 신부인척 하룻밤 자다.

날이 세자 신부가 이상하게 여기다.

몸종은 새신랑과 하루 동침하고 우물에 빠져 자살하다.

남자는 결혼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본가로 돌아오다.

그때부터 남자에게 죽은 몸종 귀신이 달려들다.

곳을 석달 열흘을 해서 귀신이 하루 나타나지 않다.

남자를 일본으로 공부하러 보내다.

귀신이 남자를 찾지만 소용없다.

40) 『한국구비문학대계』 8-9권, 경남 진주시 진영읍 설화.

10년 뒤에 남자가 돌아오기 전날 부모가 금기를 어기고 일본 간 사실을 말하다.

남자가 귀국하자 귀신에게 잡혀가다.

■ 이야기 13 신립장군의 패전과 처녀의 원혼<sup>41)</sup>

신립이 조부의 명에 따라 답품(소작료 책정)하러 가다.

소작인들이 신립에게 환대하다.

소작인집 딸이 신립이 머무는 처소에서 그 모습을 보고 반하다.

소작인집 처녀가 상사병에 걸려 죽다.

신립이 병서를 공부해 무관이 되다.

처녀가 귀신이 되어 탄금대에 머물다.

임진왜란 때 왜병 셋이 아군 진영으로 총을 쏘다.

신립이 나가서 적병들에게 활을 쏘다.

귀신이 신립의 화살을 공중에서 부러뜨리다.

신립의 조부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

신립은 결국 귀신의 방해로 전쟁에 패하다.

두 이야기는 ‘버림 받은 여자 원귀 되어 보복하기’ 유형으로 ‘바르고 그 르기’와 같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영역에 편입되어 있다.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나 성공하지 못하자 원귀가 되어서 복수를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적극성이 두드러지는 이야기이다. 특히 이야기 12에서 주인공 몸종은 주인집 사위를 납치하다시피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욕망을 성취한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성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그 원한으로 귀신이 된다는 인과율이 깨어지고 있다. 두 이야기 모두 남성 인물들은 악행을 저지르거나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것일 뿐이다. 신의에

41) 『한국구비문학대계』 7-18권, 경북 예천군 개포면 설화.

대한 남성인물의 배신 행위 같은 것은 없을 뿐 아니라, 여인들의 행동에 타당성도 찾기 어렵다. 이야기 13에서는 여인이 상사병이 걸려 죽는데, 이야기 12에서는 자신의 존재론적 지위, 즉 신분적 한계를 절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소작인 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남성 인물인 신립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몸종의 자결의 원인은 사회적 신분질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몸종의 원귀가 행한 복수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 상식선에서 몸종의 행위는 악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몸종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다.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과단성,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떠나서 한국의 전통적 덕목이나 윤리가치에 결코 어울리지는 않는 새로운 인물형임이 분명하다.

두 편의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로 세속적 윤리규범이나 현실 세계의 법칙이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음의 두 이야기는 현실 세계 속에서 스스로 욕망하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적극적인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 이야기 14 처녀의 배필 구하기<sup>42)</sup>

어느 대가집 처녀가 글공부에 재주가 있다.  
처녀는 재산도 필요 없고 글재주 뛰어난 사람을 배필로 원하다.  
처녀가 광을 붙여 자신과 글내기를 해서 신랑을 구한다고 하다.  
마을에 몽달이 총각이 천자문을 통달했고 머리가 비상했다.  
총각이 처녀 앞에 나아가 문자를 내다.  
처녀가 총각의 글재주를 알아보고 방으로 들이다.  
처녀의 오줌 누는 소리를 듣고 총각이 문자로 답하다.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다.  
첫날밤에 처녀가 총각에게 시를 짓자고 제안하다.

42) 『한국구비문학대계』 8-7권, 경남 밀양군 밀양읍 설화.



처녀가 총각의 시를 보자 결혼식한 좋은 날 격이 떨어진다고 총각을 내쫓다.  
총각이 밖에 나와 멋진 문자로 자신의 심정을 술회하다.  
처녀가 총각에게 사과하다.  
부부가 백년해로하다.

■ 이야기 15 신랑 도둑<sup>43)</sup>

가난한 남자가 재산을 팔아 서울 구경가다.  
날이 저물었을 때 도중에 여자를 만나다.  
노자가 떨어진 남녀가 부부 행세를 하며 동행하다.  
남녀가 어느 마을의 큰 집에 하루 묵게 되다.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주인이 남자에게 환대하다.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니 여자는 사라지고 없어진 폐물의 도적으로 물리다.  
남자가 오히려 호통을 치며 아내를 내어 놓으라고 하다.  
주인의 당숙이 나와 돈 백냥을 주어 남자를 보내다.  
남자와 여자가 숲 속에서 만나다.  
여자가 꼬드겨 남자에게 목욕을 시켜주다.  
남자가 물에 빠진 틈에 여자가 옷과 돈을 들고 달아나다.  
남자가 발가벗고 있을 때 순라군들이 나타나다.  
순라군들이 시체인 줄 착각하고 남자의 봉알을 약에 쓰려고 자르려 하다.  
죽은 척하던 남자가 일어나 오히려 큰소리치며 공격하다.  
도망갔던 여자가 나타나 남자 고르기 과정이라고 밝히다.(아버지를 타산  
지석삼아 어머니가 글·벼슬 소용 없고 사람 하나 잘 고르라고 말하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살다.

두 이야기는 적극적인 여성들의 활약상이 잘 나타난다. 특히 여성이 직접 자신의 배필을 구한다는 설정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성들의 지략이 두드러진다. 여기서 남성 인물들은 여성 인물들에게 시험을 받거나 조

43) 『한국구비문학대계』 2-8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설화.

종당한다. 남녀의 만남 과정에서 주체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쪽은 여성이며 남성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비로소 선택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는 유혹하는 자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이 주체가 되어 남성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채워보라고 독촉하고 있다. 이야기 15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상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과 평가가 직접 언급되고 있다. 최종 테스트를 끝낸 여성이 자신이 왜 이 같은 시험을 해서 남자를 고르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아버지와의 삶에서 고통을 몸소 체험한 어머니는 ‘글·벼슬’로 표상되는 남성적 지위와 가치를 부정하며 여성들 스스로가 원하는 남성상을 찾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이 여성 인물은 위기의 순간에 지략을 발휘할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신의 신체를 이용, 성적인 유혹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당대 사회(남성적 관점)가 요구하는 조숙한 여인과는 거리가 멀다.<sup>44)</sup> 이 여성 인물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타자 내지 객체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주체를 꿈꾸는 자들이다.

문헌설화에서도 열과 애정의 문제에서 자신의 자발적 선택을 중요시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김대숙은 문헌설화를 대상으로 열과 애정의 주체로 나선 여성들을 조명했는데, 당대 지배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애정에 따라 남성을 선택하고 사랑을 표현한 여성 인물들을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이 주체적 여성들이 선택하고 사랑한 남성들은 애정에 대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김대숙은 그 원인을 여성의 사회적 환경과 지위에서 찾는데, 교육 받지 못한 점, 즉 기존의 담론 속에 존재하는 개체이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sup>45)</sup> 그런데 주목할 점은 문헌설화의

44) 이 유형의 다른 이야기 중에는 속은 것을 알고 화를 내면서 쫓아 온 남성을 달래려고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는다. 성관계를 하다가 여성은 다시 남성을 함정에 빠뜨린다.

45) 김대숙, 「문헌설화 소재 열과 애정의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67~68쪽.

주체적 여성들이 선택한 남성들과 이야기 15의 남성은 대조적이다. 이 설화에서 여성의 선택을 받은 남성은 문헌설화의 남성들과 대조적으로 기존 질서 속에서 어느 정도 일탈해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남자를 스스로 선택한 여성 인물들이 훨씬 주체적이며 독사에 저항하는 강도 역시 강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여성들이 남녀 관계에서 주체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기존 담론의 질서에서 벗어난 주변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역설적 논리를 수립할 수 있다.

#### 4. 결론

성 내지 성차를 다룬 구비설화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생산과 소통 과정에 스며있는 성담론의 독사와 파라독사를 살펴 보았다. 많은 설화들에서 성이 희화화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성 내지 성행위 등은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성행위)과 관련된 전승자들의 금기 의식과도 연결된다. 성은 인간의 존재론적 운명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성행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발화가 자유로운 구술 상황에서도 성(성행위) 관련 언술들은 우회적으로 표현되고 진지한 접근을 회피하고 희화화된다. 희화화된 이야기에서는 성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겪는 해프닝을 주로 다루는데, ‘성교육’이 이야기들의 중심사건이다. 그런데 성교육의 직접적인 대상은 대부분 남성이다. 남성은 교육을 통해서 성지식을 획득하지만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고, 따라서 성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성기에 대한 왜곡과 과장을 다룬 이야기에서도 남성 주체의 시각, 타자화된 여성이라는 성담론을 지배하는 독사를 찾을 수 있다. 여성의 신체와 성기는 저항할 수 없는 약자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폭력의 논리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구비설화에서는 한국 문화전통 속에서 강력한 독사로 자리 잡은 남성 주체, 여성의 타자화와 부합되지 않거나, 이러한 독사에서 일탈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여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열'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 중에서 일반적인 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열불열'의 이야기가 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사랑이 실패하게 되자 상대방을 납치하거나 원귀가 되어 보복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 여성 인물이 직접 자신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남성 인물을 테스트하고, 조롱하고, 조종하는 이야기도 있다. 이 같은 여성 인물들은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과단성을 보여준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결과를 떠나 한국의 전통적 덕목이나 윤리·가치에 결코 어울리지는 않는 새로운 인물상이다. 이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타자 내지 객체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주체를 꿈꾸는 자들이다.

성담론은 견고한 독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저항하는 파라독사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으며 더욱 양산되어야 한다. 성담론의 재생산자들의 한 축은 성담론의 연구자들이다. 독사에 대한 해석과 비판, 파라독사에 대한 의미부여와 해석은 또 다른 성담론을 생산하는 것이다. 성담론을 재생산하는 연구자들 중에 여성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온 자들은 남녀관계에서 있어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예각화해 왔으며, 기존의 담론들이 가진 남성성과 대비되는 여성성의 담론을 발굴·복원시킬 것을 주문해 왔다.<sup>46)</sup> 요컨대 남성성의 독사 때문에 타자화·객체화된 여성의 소거된 영역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들 속에서 지워진 의식이나 시각을 어떻게 재구하는가이며, 나아가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담론들의 확대생산이다.

46) 강진옥, 「여성문화적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344~345쪽.

강력한 독사에 저항하는 파라독사의 생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을 강력하게 지배했던 것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그 논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의 언어로 보여줄 수 없기에 의식의 언어로 치환하고, 그에 따라 무의식의 세계는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여기서 페미니즘 연구가 스콧 J. W. Scott의 지적은 상당히 유효하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맞선 항변이었고, 그 목표는 정치에서 ‘성차’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성차’를 통해 담론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편에서 권리를 요구해야 했다. ‘여성’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은 제 자신이 없애버리고자 했던 ‘성차’를 오히려 생산해냈던 것이다. ‘성차’를 받아들이고 또한 거부해야 하는 이러한 역설이 오랜 역사를 통틀어 페미니즘을 하나의 정치운동으로 구성해 왔다.<sup>47)</sup> 요컨대 독사를 공격하고 비판하던 파라독사가 어느 순간 독사와 닮아 있는 것이다.

성담론의 재생산자들에게 놓인 숙제이다. 약자의 담론은 강자의 담론 속에서 희석되거나 이용당하기 일쑤다. 주변 담론은 중심 담론의 변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지만 그 과정에서 적들과 닮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역설, 독사에 저항하는 파라독사를 끊임없이 생성할 수밖에 없다. 그 독사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 참고문헌

##### ■ 자료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善德女王條, 卷43, 金庾信傳 下.

『芝峰類說』 卷2, 諸國部 風俗條

47) 조앤 W. 스콧, 앞의 책, 38쪽.

『燕巖集』 12,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秋 8月 初 10日條

『한국구비문학대계』 1~85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 ■ 국외 문헌

Ekkehard Eggs, "Doxa in Poetry: A Study of Aristotle's Poetics", *Poetics Today* 23:3(Fall 2002), pp.395~422.

Herschberg Pierrot, "Barthes and Doxa", *Poetics Today* 23:3(Fall 2002), pp.427~441.

Roland Barthes, "La Mythologies aujourd'hui"(1971), *Oeuvres complètes*, vol.2, ed., Eric Marty, Seuil, 1994, pp.1183~1185.

Ruth Amoss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Doxa", *Poetics Today* 23:3(Fall 2002), p.369.

Y. M. Lotman, *Universe of Mind-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p.1~349.

J. 나지오, 『정신분석학의 7가지 개념』, 표원경 역, 백의, 1999, 1~240쪽.

S.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역, 범우사, 1990, 25~26쪽, 1~488쪽.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시학』, 나종일·천병희 역, 삼성출판사, 1993, 1~412쪽.

조셉 캠벨, 『신화의 힘』, 이윤기 역, 고려원, 1996, 1~434쪽.

조앤 W.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공임순 외 역, 엘피, 2006, 1~393쪽.

토마스 S. 쿤, 『과학 혁명의 구조』, 김명자 역, 두산동아, 1999, 1~308쪽.

플라톤, 『국가/소크라테스의 변명』, 조우현 역, 삼성출판사, 1995, 1~472쪽.

#### ■ 국내 문헌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5~49쪽.

강진옥,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237~351쪽.

김대숙, 「문헌설화 소재 열과 애정의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9~70쪽.

김열규, 『한국의 문화코드 열 다섯 가지』, 금오문화, 1997, 1~286쪽.

민찬, 「열불열설화의 이념적 지향과 삶의 문제」, 『한국문화』 9, 서울대학교 한국문

- 화연구소, 1987, 68~77쪽.
- 신동훈, 「문헌 육담과 구전 육담에 담긴 성의식」, 김선풍 외,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81~116쪽.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소통과 생성 원리』, 한국학술정보, 2005, 1~312쪽
- 이인경, 「‘개기열여담’에 나타난 열과 정절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6, 한국구비문학회, 1998, 267~306쪽.
-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出嫁外人’ 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57~278쪽.
-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 수집과 설화 분류의 기본 원리』,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1~19쪽.
-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 성, 사랑, 권력-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2003, 243~275쪽.
- 하현강, 「한국 여성상의 형성」, 김열규 외, 『한국여성의 전통상』, 민음사, 1985, 1~175쪽.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 동녘, 1994, 1~381쪽.

K C I

ABSTRACT

Discourse of Sexual Matters, Doxa and Paradoxa in Folktales

Oh, Se-Jeong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issue doxa and paradoxa of discourse of sexual matters in oral folktales. Lots of travestied tales of sexual matters show the rigid doxa, men as subject have the sexual dominance towards women. Especially that tales of sexual matters disguise mens violence towards women, their body and sexual organs by travesty.

However some folktales have unusual female characters who give a denial to doxa which works in male dominated society. The heroines test, ridicule, and control male characters. Also they do not obey social order which man made and refuse the traditional norm and moral. These heroines are not found written tale-literature. We can find that oral folktales which contain sexual matters provide productive debate subjects to reestablish womens identities. Through the tales we can find the possibility to overcome doxa and have a chance to approach the paradoxa in sexual discourse.

**Key Words** discourse, doxa, paradoxa, oral folktale, travesty, subject, other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